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요한복음 22 주차 (10:31~11:16)

(2015년 6월 21일 - 2015년 6월 27일)

(제3권 22호)



Missions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B2B** 제 3 권-제 22 호

창간일: 2014 년 11 월 2 일

발간일: 2015 년 6 월 21 일

발행처: B2B Missions

800 Roosevelt, Irvine, CA 92620

www.b2bm.org

인용성경

한글성경: 대한 성서공회에서 출간한 개역한글

헬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Greek New Testament 4th edition (1993)

히브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BIBLIA HEBRAICA STUTTIGARTENSIA (1997)

번역 및 해설

편집책임: Steve Kim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D.Min Program, Talbot School of Theology)

편집위원: Sean Roh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Program,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Charlie Cho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Talbot School of Theology)

이 큐티 자료는 회원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파하는 힘이 됩니다. 일주일에 1 불 (한국 약 1000 원) 이상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B2B Missions 의 홈페이지 (www.b2bm.org) 를 방문하셔서 회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이 책에 수록된 원어해석과 해설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해석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회원들에게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Copyright © 2015 by B2B Missions.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은 저자의 고유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의 인용 또는 전제시 반드시 B2B Missions 또는 저자의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행한 입을 보고 믿으라 (주입)

오늘의 본문 (요 10:31~42)

31.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32.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하느냐
33.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람함을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34.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35.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36.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람하다 하느냐
37.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38.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39. 저희가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40.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주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41.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42.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원문해석하기

- (31절) 유대인들이 그에게 던지려고 돌을 다시 들었습니다 (Εβάζασταν πάλιν λίθους οἱ Ἰουδαῖοι ἵνα λιθάσωσιν αὐτόν.)
- (3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ἀπεκρίθη αὐτοῖς ὁ Ἰησοῦς·) 내가 당신들에게 아버지로부터 많은 일들을 보였습니다 (πολλὰ ἔργα καλὰ ἔδειξα ὑμῖν ἐκ τοῦ πατρός·) 그것들 중 어떠한 것으로 나를 치려합니까? (διὰ ποῖον αὐτῶν ἔργων ἐμὲ λιθάζετε·)
- (33절) 유대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습니다 (ἀπεκρίθησαν αὐτῷ οἱ Ἰουδαῖοι·) 우리가 선한 일에 대하여 당신을 돌로 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περὶ καλοῦ ἔργου οὐ λιθάζομέν σε) 오히려 신성모독에 대하여입니다 (ἀλλὰ περὶ βλασφημίας·) 왜냐하면 당신이 사람일지라도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καὶ ὅτι σὺ ἄνθρωπος ὢν ποιεῖς σεαυτὸν θεόν·)
- (3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ἀπεκρίθη αὐτοῖς [ὁ] Ἰησοῦς·) 당신들의 율법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οὐκ ἔστιν γεγραμμένον ἐν τῷ νόμῳ ὑμῶν) “내가 말합니다. 당신들은 신입니다” (ὅτι ἐγὼ εἶπα· θεοὶ ἐστε·)
- (35절) 만약 그가 그들을 신이라 불렀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그 로고스]이 존재했습니다

- (εἰ ἐκεῖνους εἶπεν θεοὺς πρὸς οὓς ὁ λόγος τοῦ θεοῦ ἐγένετο,
그리고 성경은 꾀하여 질 수 없습니다 (καὶ οὐ δύναται λυθῆναι ἡ γραφή.)
- (36절) 아버지가 거룩하게 하시고 세상에 보내신 그를 (ὄν ὁ πατήρ ἡγίασεν καὶ ἀπέστειλεν εἰς τὸν κόσμον)
내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당신들이 신성모독한다고 말을 합니까?
(ὁμοίως λέγετε ὅτι βλασφημεῖς, ὅτι εἶπον· υἱὸς τοῦ θεοῦ εἰμι.)
- (37절) 만약 내가 나의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εἰ οὐ ποιοῦ τὰ ἔργα τοῦ πατρός μου),
당신들은 나를 믿지 마십시오 (μὴ πιστεύετε μοι.)
- (38절) 만약 내가 그것을 행하면 (εἰ δὲ ποιοῦ),
나를 믿지 않을지라도 (κἂν ἐμοὶ μὴ πιστεύητε),
당신들은 그 일들을 믿으십시오 (τοῖς ἔργοις πιστεύετε),
그 결과 당신들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았을 것이고 깨달을 것입니
다 (ἵνα γινώσκῃτε καὶ γινώσκητε ὅτι ἐν ἐμοὶ ὁ πατήρ καὶ ἐγὼ ἐν τῷ πατρὶ.)
- (39절) 그러자 그들이 다시 그를 잡으려고 하였습니까 (Ἐζήτουν [οὖν] αὐτὸν πάλιν πιάσαι),
그러나 그가 그들 손을 벗어 났습니까 (καὶ ἐξῆλθεν ἐκ τῆς χειρὸς αὐτῶν.)
- (40절) 그리고 그가 다시 요단강 건너편 요한이 세례를 주던 곳으로 가셨습니까
(Καὶ ἀπῆλθεν πάλιν πέραν τοῦ Ἰορδάνου εἰς τὸν τόπον ὅπου ἦν Ἰωάννης τὸ πρῶτον βαπτίζων)
그리고 거기에 머무셨습니다 (καὶ ἔμεινεν ἐκεῖ.)
- (41절)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왔습니다 (καὶ πολλοὶ ἦλθον πρὸς αὐτὸν)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사실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않았지만
(καὶ ἔλεγον ὅτι Ἰωάννης μὲν σημεῖον ἐποίησεν οὐδέν.)
요한이 이 분에 대하여 말한 모든 것은 진실입니다
(πάντα δὲ ὅσα εἶπεν Ἰωάννης περὶ τούτου ἀληθῆ ἦν.)
- (42절) 그리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었습니다 (καὶ πολλοὶ ἐπίστευσαν εἰς αὐτὸν ἐκεῖ.)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37 절과 38 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판단을 요구합니다. 판단의 기준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내가 나의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당신들은 나를 믿지 마십시오. 만약 내가 그것을 행하면, 나를 믿지 않을지라도 당신들은 그 일들을 믿으십시오 그 결과 당신들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았을 것이고 깨달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판단 기준은 아버지의 일들입니다. 아버지의 일들이란 아버지가 이미 여러 방법을 통해 유대 민족에게 약속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실 일을 율법이나 선지자를 통해 여러 방법으로 택한 백성들에게 알려 왔고, 그 약속은 반드시 실행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성취하는 것을 통해 자신을 계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은 곧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주 사용하신 이런 화법은 비단 유대인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후 그의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

“우리가?”(마 11:3)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즉답을 피하시고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 장 4 절~6 절을 읽으십시오.

“4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5 소경이 보며 앉은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6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11:4-6).

예수님은 철저하게 언약을 성취하는 모습으로 자신을 세상에 계시하셨습니다. 위 말씀도 언약이 성취되는 모습,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때 실제로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셨을 뿐입니다(이사야 61 장 참조). 실제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오실 선지자’에 대해 예언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45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중 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21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22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와의 이름으로 말한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신 18:15-22).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 신명기 말씀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고 예수님은 지금 그 일을 충실히 해내고 있으니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심을 깨달으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37 절과 38 절에서 두 번의 가정을 하십니다. 첫 번째 가정은 “만약 내가 나의 아버지의 일들을 행하지 않는다면 (εἰ οὐ ποίω τὰ ἔργα τοῦ πατρὸς μο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정은 “만약 그것을 행하면 (εἰ δὲ ποίω,)”입니다. 판단 기준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고 판단의 주체는 유대인들입니다. 우리는 그 동안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놓고 설왕설래했던 사실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 자체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정죄한 것은 예수님이 그들이 믿고 지켜왔던 종교적 계율들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들이 믿어온 종교적 계율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이 행한 일들을 부인할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행한 일들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따라 그들의 종교적 계율을 재해석할 것인지 유대인들에게 선택을 종용하고 계신 것이지요.

만약 그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믿는다면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이고 (γινώτε, 그노테) 깨달을 것입니다(γινώσκητε, 기노스케테).

그 당시 유대인들처럼 오늘날의 많은 기독교인들도 그들만의 종교적 기준을 갖고 살아갑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은 그 당시의 율법주의보다는 오히려 도덕주의에 가까운 사고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도덕주의는 율법주의와 마찬가지로 선악 이분법에 빠질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모든 것을 옳고 그름의 문제로, 선과 악의 문제로 접근하려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 선악 이분법을 벗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우리의 상태나 행위의 결과와 전혀 무관하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예수님을 통해 관계 회복을 선포하셨기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이미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덕주의에 따른 선악 이원론에 빠지면 하나님이 선포하신 은혜의 관계, 사랑의 관계는 언제든지 인간의 행위에 따라 깨질 수 있는 조건부 은혜로 변질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거나 개인적으로 고난에 부딪히게 되면 선악 이원론에 빠진 사람들은 그 원인을 자신의 도적적 결함에서 찾으려 애를 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매우 잘못된 신앙관 중의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 인간이 도저히 자신들의 힘으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사실 때문이지 인간들에게 예수님처럼 의로운 삶을 살라고 본보기로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기준으로 십자가의 능력과 그 효력을 깎아 내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하며 그들이 자신들이 세운 율법적 기준을 갖고 서로 다투는 것을 보고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 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롬 14:22).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가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기준을 절대 기준으로 생각하여 자신과 남을 정죄하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의 효력마저 의미없는 것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나요? 자기 눈에 보기에, 자기 귀에 듣기에 거슬려도 그것은 내가 세운 기준을 거스르는 것이 십자가를 거스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기준은 우리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가 행한 입을 보고 믿으라 (주입)

오늘의 본문 (요 10:31~42)

31.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32.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하느냐
33.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람함을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34.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35.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36.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람하다 하느냐
37.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38.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39. 저희가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40.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주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41.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42.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원문해석하기

- (31절) 유대인들이 그에게 던지려고 돌을 다시 들었습니다 (Εβάζουσαν πάλιν λίθους οἱ Ἰουδαῖοι ἵνα λιθάσωσιν αὐτόν.)
- (3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ἀπεκρίθη αὐτοῖς ὁ Ἰησοῦς·) 내가 당신들에게 아버지로부터 많은 일들을 보였습니다 (πολλὰ ἔργα καλὰ ἔδειξα ὑμῖν ἐκ τοῦ πατρός·) 그것들 중 어떠한 것으로 나를 치려합니까? (διὰ ποῖον αὐτῶν ἔργων ἐμὲ λιθάζετε·)
- (33절) 유대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습니다 (ἀπεκρίθησαν αὐτῷ οἱ Ἰουδαῖοι·) 우리가 선한 일에 대하여 당신을 돌로 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περὶ καλοῦ ἔργου οὐ λιθάζομέν σε) 오히려 신성모독에 대하여입니다 (ἀλλὰ περὶ βλασφημίας·) 왜냐하면 당신이 사람일지라도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καὶ ὅτι σὺ ἄνθρωπος ὢν ποιεῖς σεαυτὸν θεόν·)
- (3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ἀπεκρίθη αὐτοῖς [ὁ] Ἰησοῦς·) 당신들의 율법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οὐκ ἔστιν γεγραμμένον ἐν τῷ νόμῳ ὑμῶν) “내가 말합니다. 당신들은 신입니다” (ὅτι ἐγὼ εἶπα· θεοὶ ἐστέ·)
- (35절) 만약 그가 그들을 신이라 불렀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그 로고스]이 존재했습니다

- (εἰ ἐκεῖνους εἶπεν θεοὺς πρὸς οὓς ὁ λόγος τοῦ θεοῦ ἐγένετο,
그리고 성경은 꾀하여 질 수 없습니다 (καὶ οὐ δύναται λυθῆναι ἡ γραφή.)
- (36절) 아버지가 거룩하게 하시고 세상에 보내신 그를 (ὄν ὁ πατήρ ἡγίασεν καὶ ἀπέστειλεν εἰς τὸν κόσμον)
내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당신들이 신성모독한다고 말을 합니까?
(ὁμοίως λέγετε ὅτι βλασφημεῖς, ὅτι εἶπον· υἱὸς τοῦ θεοῦ εἰμι.)
- (37절) 만약 내가 나의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εἰ οὐ ποιοῦ τὰ ἔργα τοῦ πατρός μου),
당신들은 나를 믿지 마십시오 (μὴ πιστεύετε μοι.)
- (38절) 만약 내가 그것을 행하면 (εἰ δὲ ποιοῦ),
나를 믿지 않을지라도 (κἂν ἐμοὶ μὴ πιστεύητε),
당신들은 그 일들을 믿으십시오 (τοῖς ἔργοις πιστεύετε),
그결과 당신들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았을 것이고 깨달을 것입니
다 (ἵνα γινώσκῃτε καὶ γινώσκῃτε ὅτι ἐν ἐμοὶ ὁ πατήρ καὶ ἐγὼ ἐν τῷ πατρὶ.)
- (39절) 그러자 그들이 다시 그를 잡으려고 하였습니까 (Ἐζήτουν [οὖν] αὐτὸν πάλιν πιάσαι.)
그러나 그가 그들 손을 벗어났습니다 (καὶ ἐξῆλθεν ἐκ τῆς χειρὸς αὐτῶν.)
- (40절) 그리고 그가 다시 요단강 건너편 요한이 세례를 주던 곳으로 가셨습니다
(Καὶ ἀπῆλθεν πάλιν πέραν τοῦ Ἰορδάνου εἰς τὸν τόπον ὅπου ἦν Ἰωάννης τὸ πρῶτον βαπτίζων)
그리고 거기에 머무셨습니다 (καὶ ἔμεινεν ἐκεῖ.)
- (41절)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왔습니다 (καὶ πολλοὶ ἦλθον πρὸς αὐτὸν)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사실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않았지만
(καὶ ἔλεγον ὅτι Ἰωάννης μὲν σημεῖον ἐποίησεν οὐδέν.)
요한이 이 분에 대하여 말한 모든 것은 진실입니다
(πάντα δὲ ὅσα εἶπεν Ἰωάννης περὶ τούτου ἀληθῆ ἦν.)
- (42절) 그리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었습니다 (καὶ πολλοὶ ἐπίστευσαν εἰς αὐτὸν ἐκεῖ.)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39 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의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다시 잡으려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손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사실 이번이 유대인들을 향한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더더욱 완악해지고 점점 진리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지위와 세계관을 버릴 수 없었고 더 나아가 그 세계관에 입각하여 예수님을 배척하고 심지어 체포하려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보인 이와 같은 행태를 스테레오타입이라고 부르는데 두산백과사전은 이 단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테레오타입은] 고정관념이라고 번역된다. 대개의 경우 뚜렷한 근거가 없고 감정적인 판단에 의거하고 있다. 인간이 왜 스테레오타입을 고집하느냐 하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인간이 스테레오타입에 의존하지 않고는 일상생활의 모든 사물을 새롭게 지각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스테레오타입의 체계가 아이덴티티의 핵심이며 자아 방어 메커니즘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상황에 따라 어떤 스테레오타입이 불합리한 것이라고 판단되더라도 질서와 단순성을 성취하기 위해서 현실을 왜곡시키기도 한다. 그렇다고 해서 스테레오타입이 이상하거나 병적인 것은 아니다. 그것은 어떤 개인에 대한 첫인상처럼 자연스러운 인지반응(認知反應)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이 자연스러운 인지반응을 수용하지 않고 거부할 때 반도덕적·반사회적이라는 낙인과 함께 비

난과 공격을 받게 된다. 또한 이러한 제재가 정당한 것으로 당연시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람들을 스테레오타입에 순종과 동조를 보인다.”

이 말을 다시 설명하면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해석하는 자기만의 틀을 갖고 있어서 어떤 사건이나 이론이든 그 틀에 의해 판단하고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해석의 틀은 바로 유대주의였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미 150년 이상 유대사회를 지배하는 생각의 틀, 판단의 틀이었으며 그 자체가 그들의 정체성이었고 그 사회를 유지하는 규범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의 틀인 유대주의에 반하는 말이나 행동들을 그들이 수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를 수용할 경우 자신들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것은 물론 사회를 지탱하는 가치 체계 전반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스테레오타입(고정 관념)은 시간이 흐르면 서서히 형성되고 굳어져 나중에는 그것이 자연스럽게 삶의 일부분으로 변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것을 믿으라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 전반을 무너뜨리는 혁명적인 일이었기에 그럴 가능성은 매우 희박했습니다. 오늘날 성경을 읽는 우리들은 쉽게 유대인들을 비판하고 그들의 행동에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들의 완악함으로 인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히 시게 되고 이방인들인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주의라는 그들의 고정관념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일을 자연스럽게 실행해 가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들입니다. 기독교가 출범한지 1500년 동안 기독교는 그 뿌리부터 철저히 썩어 급기야는 그리스도의 은혜라고는 눈 씻고 찾아볼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마르틴 루터는 목숨을 걸고 개혁을 외쳤고 그 결과 개신교라는 것이 생겨난 것이지요. 그로부터 500년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어떠한가요? 기독교는 성경보다는 인간들의 쓴글이 더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인간의 의지가 강조되는 시기로 변화하였습니다. 수많은 고정관념들이 신자들을 지배하여 이제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를 외쳐도 ‘소 귀에 경읽기’처럼 메아리없는 허공에 외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당시 유대주의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은 자신들의 생각이 옳다고 믿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옳바로 잘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의지와 세계관으로 뚝뚝 뭉쳐 바늘 구멍 하나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빈틈없이 자신을 방어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가 옳고 그름만을 따지는 바리새인같은 존재는 아닌지 또는 우리가 세상에서의 번영만을 추구하는 사두개인같은 사람들은 아닌지 깊이 고민하고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 당신의 신앙을 돌아보아 정말 옳은 길에 서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의지를 강조하고, 늘 선과 악의 잣대로 세상의 일을 판단하고, 이 세상의 번영을 추구하고 있다면 어찌면 본인이 개혁의 대상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당신은 어떠한가요? 개혁의 대상인가요? 아니면 개혁의 주체인가요?

40-42 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 세레 요한이 처음 세례를 주던 곳으로 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과거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했던 그 증언들이 사실이었다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갈릴리가 아닌 자신이 세례를 받았던 곳으로 물러나셨을까요? 주석가 D.A. Carson 은 신학적으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그곳에서 사실상 그의 공생애를 마무리하셨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적절한 해석으로 여겨집니다. 11 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 자신의 몸이 희생 제물로 드러지는 그 일만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나사로를 살리시며 부활을 예고하시고 하시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이적과 가르침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공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통해 계시된 그 진리에 대해 다시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 (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예수님이 사랑하신 삼남매 (화요일)

오늘의 본문 (요 11:1~6)

1.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2.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러라
3. 이에 그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4.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5.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6.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들을 더 유하시고

원문해석하기

- (1절) 어떤 환자가 있었습니다 (Ἦν δέ τις ἀσθενῶν.)
베다니의 나사로[였습니다] (Λάζαρος ἀπὸ Βηθανίας.)
그의 누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작은 마을에 [사는]
(ἐκ τῆς κόμης Μαρίας καὶ Μάρθας τῆς ἀδελφῆς αὐτῆς.)
- (2절) 마리아는 향유로 주를 기름부음한 [여인]이었습니다 (ἦν δὲ Μαριάμ ἡ ἀλείψασα τὸν κύριον μύρω)
그리고 그의 머리카락으로 그의 발을 씻었던 (καὶ ἐκμάζασα τοὺς πόδας αὐτοῦ ταῖς θριξίν αὐτῆς.)
그 형제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ἦς ὁ ἀδελφὸς Λάζαρος ἠσθένει.)
- (3절) 그래서 그 오누이들이 [사람을] 그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ἀπέστειλαν οὖν αἱ ἀδελφαὶ πρὸς αὐτὸν λέγουσαι·)
주여! 병들어 있는 당신이 사랑하는 자를 보시옵소서 (κύριε, ἴδε ὃν φιλεῖς ἀσθενεῖ.)
- (4절) 예수께서 들으신 후 말씀하시길 (ἀκούσας δὲ ὁ Ἰησοῦς εἶπεν·)
그는 죽기 위한 병자가 아닙니다 (αὕτη ἡ ἀσθένεια οὐκ ἔστιν πρὸς θάνατον)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하는 것입이다 (ἀλλ' ὑπὲρ τῆς δόξης τοῦ θεοῦ.)
그를 통하여 하나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됩니다 (ἵνα δοξασθῇ ὁ υἱὸς τοῦ θεοῦ δι' αὐτῆς.)
- (5절) 예수님이 마르다와 그녀의 여동생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ἠγάπα δὲ ὁ Ἰησοῦς τὴν Μάρθαν καὶ τὴν ἀδελφὴν αὐτῆς καὶ τὸν Λάζαρον.)
- (6절) 그런데 그가 병들었다는 것을 들었을 때 (ὡς οὖν ἤκουσεν ὅτι ἀσθενεῖ)
그럼에도 자신이 계시던 곳에서 이들을 더 머무셨습니다 (τότε μὲν ἔμεινεν ἐν ᾧ ἦν τόπω δύο ἡμέρας.)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공생애 전반을 알아 보았습니다. 10 장까지 기록된 내용들은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시고 그 이적의 의미에 대해 유대인들과 토론을 하게 되며 그런 토론 과정을 통해 예수님 스스로를 드러내는 형식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11 장부터는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맞닥뜨려 그

행하신 일의 의미에 대해 따져 묻는 형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사건의 의미를 설명하시는데 이제 는그 의미를 제자들을 위시한 소수의 인원에게만 설명해 주십니다.

11 장은 죽어 나홀이 된 나사로를 되살려 내는 드라마틱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인간 으로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최고의 기적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 니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제자들을 비롯하여 이 땅에 남아 고난을 당하는 교회를 향 해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건으로 보아야 합니다. 11 장을 읽어 나가며 하나 하나 그 의미를 알아 보기로 하겠습니다.

1 절부터 6 절 말씀은 전체 이야기의 서론에 해당합니다. 사건의 발단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요. 저자인 요한은 나사르가 지금 어떤 상태이고 그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누구이며, 그들이 어떤 상태에 처했 고 그 소식을 전해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태도를 취하셨는지를 매우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 절을 읽으십시오. 베다니라는 마을에 한 환자가 있었는데 그의 누이들은 마리아와 마르다였습니다. 그 환자의 이름은 나사로였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단어 하나 하나는 사건을 이해하는 열쇠를 담고 있기에 글자 하나라도 그 의미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물론 억지로 무리해서 적용하려 하면 오히려 진 리를 왜곡할 수 있으므로 해석에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특별한 사건이 일어난 경우 그에 관련된 지명이나 인명을 기록한 것은 특별히 그 이름에 어떤 깊은 의미가 들어 있는 경우가 대부 분이므로 그 의미를 찾아보는 것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성경 해석 과정 중의 하나입니다.

1 절을 다시 한번 읽으십시오. 1 절은 “어떤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베다니의 나사로 [였습니다]”라 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다니’ (Βηθανία, 베다니아스)는 예루살렘 근처 감람산 어귀에 있던 마을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마 을 이름의 뜻이 의미심장합니다. ‘베다니’라는 말은 ‘고난의 집’, ‘역경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 바로 근처에 역경의 마을이 있었고 그 마을에 삼남매가 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참고 로 이 베다니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한 주간을 머무시던 곳이기도 합니 다 (마 21:7, 막 11:11 참조).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하늘로 들리워 올라가신 곳이기도 하지요. (눅 24:50 참조). 또 공교롭게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을 증언한 곳도 요단강 건너편 의 베다니라는 마을이었습니다 (요 1:28). [물론 세례 요한이 증언한 그곳과 이곳이 동일한 장소인지는 알 수 없으나 확실한 것은 그 마을 이름이 베다니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베다니, 즉 역경의 집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베다니라는 단어를 중심으 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우리들의 삶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 교회 당시 사도 요한이 쓴 이 편지를 받아 읽던 최초의 독자들에게 ‘베다니’라는 말이 주는 의미는 어떠했을까요? 화려한 도시도 아닌 작은 마을 ‘베다니’... 어찌면 이 ‘베다니’라는 말을 통해 로마의 억압 아래에서 고난받는 힘없고 보잘 것 없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려 했던 건 아니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가요? 크고 화려한 성전에서 어느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예 배드리며 오히려 신앙을 특권처럼 여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수만, 수십만 명이 한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이곳저곳 자신의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아 쇼핑도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다

나'라는 말에 담긴 뜻인 역경의 공동체, 고난의 공동체라는 말은 선뜻 마음에 와 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베다니'라는 말은 실제로 예수님 당시의 초대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풍조를 쫓아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의 가치관 대로 살고 있으니 세상과 교회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교회가 고난과 역경의 공동체라는 말이 어색하게 들리는 것이지요. 하지만 교회가 그 본연의 모습대로 세상을 거스르고 진리를 외치게 되면 세상은 교회를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떠한가요? 스스로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어떨런지요?

이 베다니에 어떤 환자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나사로였습니다. 환자로 해석된 헬라어 '티스 아스테론' (τις ἀσθενῶν)은 단순히 병든 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무기력한자, 힘이 다 빠져 자신의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자, 무능한 자라는 뜻입니다. 마치 배터리가 다 방전되어 아예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과 역경이라는 한 작은 마을에 무력하게 죽음을 기다리는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인가요? 사도 요한은 이 글을 쓸 당시 무엇을 연상했을까요? 로마의 압제로 숨고 도망하고 그러다 잡히면 무력하게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는 당시의 교회가 처한 상황을 연상했을 것입니다. 극한 고난과 역경에 처한 무능하고 힘없어 보이는 교회 공동체에게 이 나사로의 이야기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당시 상황을 연상하면서 1 절을 다시 한 번 읽어 보십시오. 어떤 것이 머리속에 그려지나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 구절에 담긴 의미를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이름은 나사로였습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의미인데, 이 말은 이 세상으로부터는 어떠한 도움도 기대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나사로라는 이름은 누가복음에도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6 장에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이야기가 등장하는데 누가는 거지 나사로의 처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¹⁹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²⁰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얹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²¹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눅 16:19-21).

나사로...고난과 역경의 작은 마을 베다니에서 이 세상으로부터는 어떤 도움도 구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손길만 기다리며 무력하게 누워 죽음을 기다리는 한 청년 나사로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에게 이 세상에서 무슨 낙이 있으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어찌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바로 나사로의 모습이 아닐까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처지를 올바르게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유일한 살 길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 부릅니다.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마리아와 마르다 (수요일)

오늘의 본문 (요 11:1~6)

1.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2.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러라
3. 이에 그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 다 하니
4.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यो 하나님의 아 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함이라 하시더라
5.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6.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들을 더 유하시고

원문해석하기

- (1절) 어떤 환자가 있었습니다 (Ἦν δέ τις ἀσθενῶν.)
베다니의 나사로[였습니다] (Λάζαρος ἀπὸ Βηθανίας.)
그의 누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작은 마을에 [사는]
(ἐκ τῆς κώμης Μαρίας καὶ Μάρθας τῆς ἀδελφῆς αὐτῆς.)
- (2절) 마리아는 향유로 주를 기름부음한 [여인]이었습니다 (ἦν δὲ Μαριάμ ἡ ἀλείψασα τὸν κύριον μύρω)
그리고 그의 머리카락으로 그의 발을 씻었던 (καὶ ἐκμιάξασα τοὺς πόδας αὐτοῦ ταῖς θριξίν αὐτῆς.)
그 형제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ἦς ὁ ἀδελφὸς Λάζαρος ἠσθένει.)
- (3절) 그래서 그 오누이들이 [사람을] 그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ἀπέστειλαν οὖν αἱ ἀδελφαὶ πρὸς αὐτὸν λέγουσαι·)
주여! 병들어 있는 당신이 사랑하는 자를 보시옵소서 (κύριε, ἴδε ὃν φιλεῖς ἀσθενεῖ.)
- (4절) 예수께서 들으신 후 말씀하시길 (ἀκούσας δὲ ὁ Ἰησοῦς εἶπεν·)
그는 죽기 위한 병자가 아닙니다 (αὕτη ἡ ἀσθένεια οὐκ ἔστιν πρὸς θάνατον)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하는 것입이다 (ἀλλ' ὑπὲρ τῆς δόξης τοῦ θεοῦ.)
그를 통하여 하나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됩니다 (ἵνα δοξασθῇ ὁ υἱὸς τοῦ θεοῦ δι' αὐτῆς.)
- (5절) 예수님이 마르다와 그녀의 여동생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ἠγάπα δὲ ὁ Ἰησοῦς τὴν Μάρθαν καὶ τὴν ἀδελφὴν αὐτῆς καὶ τὸν Λάζαρον.)
- (6절) 그런데 그가 병들었다는 것을 들었을 때 (ὡς οὖν ἤκουσεν ὅτι ἀσθενεῖ.)
그럼에도 자신이 계시던 곳에서 이들을 더 머무셨습니다 (τότε μὲν ἔμεινεν ἐν ᾧ ἦν τόπω δύο ἡμέρας.)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2절을 읽으십시오. 요한은 친절하게 나사로의 누이 중 한 사람인 마리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향유로 주를 기름부음한 그리고 그의 머리카락으로 그의 발을 씻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머무실 때에 예수님께 와

서 향유 옥합을 깨뜨려 그것을 예수님께 부은 사건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 때 향유를 부은 사람이 바로 마리아입니다(요 12:3 참조). 그렇다면, 지금 요한이 마리아를 설명하면서 “향유로 주를 기름부은 한, 그리고 그의 머리카락으로 그의 발을 씻었던[여인]”이라는 설명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몇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마리아가 유월절 최후의 만찬 이전에도 이미 예수님께 기름을 부은 적이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요한이 유월절에 한 번 있었던 사건을 이 부분에 끌어다가 설명했다는 해석,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 등장한 마리아와 최후의 만찬 당시의 마리아는 서로 다른 마리아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마리아를 설명하면서 어떠한 배경 설명도 없이 향유를 붓고 머리로 씻었다고 말한 것은 이미 요한의 독자들이라면 당연히 그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고 전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즉, 이 사건은 하도 유명해서 독자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더 이상 부연 설명이 필요없이 그냥 이야기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건이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최후의 만찬 당시 마리아가 예수님께 찾아와 한 일과 그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6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7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아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8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9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10 예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11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12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13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하시니라”(마 26:6-13).

아마도 당시 그리스도인들 또는 그들에게 전도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따라 이 여자의 이야기도 함께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는 상식에 가까운 정보였을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바로 그 일, 즉 예수님이 잡히시기 직전 만찬장에 와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한 사건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붓고 머리로 발을 씻은 그 여인이 바로 나사로의 누이이고 마르다의 여동생인 마리아다!’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요한은 지금 나사로의 사건이 단순히 죽은 사람을 살려낸 사건 정도가 아니라 이 일이 예수님의 부활 나아가 모든 믿는 사람들의 부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마리아가 옥합을 깨 사건 → 나사로와 그 삼남매의 고난 → 나사로의 죽음 → 그리고 나사로의 부활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마리아가 옥합을 깨 사건 → 예수님의 고난 → 예수님의 죽음 →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한은 바로 이점을 설명하기 위해 마리아가 누구인지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한편,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는 누가복음 10장에 한번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은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³⁸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³⁹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⁴⁰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⁴¹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⁴²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눅 10:38-42).

여기서 누가는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가 살았던 마을이 베다니였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그냥 한 촌이라고만 말합니다. 따라서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두 자매와 요한복음의 두 자매가 동일 인물인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기일이 차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던 중이었고(눅 10:53),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바로 직전에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 점, 그리고 베다니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 즉 예루살렘에서 약 2마일(3.2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정황을 토대로 두 복음서에 등장한 이들을 동일인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러한 정보 만으로는 이들이 동일인이라고 100%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하면서 위에서 인용한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근거로 선불리 마리아와 마르다의 성격을 규정하고 설명하는 것은 옳은 태도라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과는 별개로 우리는 마리아와 마리아의 이름에서 그들의 성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단서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히브리어로 마라(מָרָא)에서 나온 말입니다. ‘마라’라는 단어는 ‘근심하다’ ‘비통해하다’ ‘맛이 쓰다’ 등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설명을 위해 몇 가지 예문을 들어 보겠습니다.

“³⁴에서가 사십세에 헷 족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³⁵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의 근심이 되었더라”(창 26:34-35).

“²²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²³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출 15:22-23).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룻1:20).

마리아는 힘없고, 고통받고, 고난과 환란으로 인해 비통해 하는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복음서에서 예수님과 관련된 여인들의 이름이 한결같이 마리아라는 점은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편, 마르다는 ‘권력을 가진 여인’ ‘하인을 거느린 여주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마리아와는 정반대의 의미이지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자신들의 힘으로 능히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다고 여깁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이처럼 그 이름에서부터 차이가 납니다. 물론 이름과 예수님을 믿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사실이며 그 이름의 뜻과 연관지어 볼 때 이것이 결코 우연이라고 보기는 매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누구로 알고 사시나요? 마리아인가요? 아니면 마르다인가요?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요일)

오늘의 본문 (요 11:1~6)

1.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2.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러라
3. 이에 그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4.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यो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5.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6.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들을 더 유하시고

원문해석하기

- (1절) 어떤 환자가 있었습니다 (Ἦν δέ τις ἀσθενῶν.)
베다니의 나사로[였습니다] (Λάζαρος ἀπὸ Βηθανίας.)
그의 누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작은 마을에 [사는]
(ἐκ τῆς κόμης Μαρίας καὶ Μάρθας τῆς ἀδελφῆς αὐτῆς.)
- (2절) 마리아는 향유로 주를 기름부음한 [여인]이었습니다 (ἦν δὲ Μαριάμ ἡ ἀλείψασα τὸν κύριον μύρω)
그리고 그의 머리카락으로 그의 발을 씻었던 (καὶ ἐκμάζασα τοὺς πόδας αὐτοῦ ταῖς θριξίν αὐτῆς.)
그 형제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ἦς ὁ ἀδελφὸς Λάζαρος ἠσθένει.)
- (3절) 그래서 그 오누이들이 [사람을] 그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ἀπέστειλαν οὖν αἱ ἀδελφαὶ πρὸς αὐτὸν λέγουσαι·)
주여! 병들어 있는 당신이 사랑하는 자를 보시옵소서 (κύριε, ἴδε ὃν φιλεῖς ἀσθενεῖ.)
- (4절) 예수께서 들으신 후 말씀하시길 (ἀκούσας δὲ ὁ Ἰησοῦς εἶπεν·)
그는 죽기 위한 병자가 아닙니다 (αὕτη ἡ ἀσθένεια οὐκ ἔστιν πρὸς θάνατον)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하는 것입이다 (ἀλλ' ὑπὲρ τῆς δόξης τοῦ θεοῦ.)
그를 통하여 하나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됩니다 (ἵνα δοξασθῇ ὁ υἱὸς τοῦ θεοῦ δι' αὐτῆς.)
- (5절) 예수님이 마르다와 그녀의 여동생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ἠγάπα δὲ ὁ Ἰησοῦς τὴν Μάρθαν καὶ τὴν ἀδελφὴν αὐτῆς καὶ τὸν Λάζαρον.)
- (6절) 그런데 그가 병들었다는 것을 들었을 때 (ὡς οὖν ἤκουσεν ὅτι ἀσθενεῖ.)
그럼에도 자신이 계시던 곳에서 이들을 더 머무셨습니다 (τότε μὲν ἔμεινεν ἐν ᾧ ἦν τόπω δύο ἡμέρας.)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3절을 읽으십시오. 그래서 나사로의 오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들을 보내어 “주여! 병들어 있는 당신이 사랑하는 자를 보시옵소서”라고 전했습니다. 저자인 요한은 굳이 ‘그래서’ (οὖν)라는 말을 넣어 예

수님과 마리아 그리고 마르다가 서로 매우 친밀한 관계였음을 강조합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당당히 자기들을 도와 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고 예수님은 당연히 그들의 청을 들어 주셔야 했다는 말입니다. 사실 이전에 예수님이 병고치는 이적을 행하신 것을 보면 거기엔 어떠한 조건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 병자들은 하나같이 예수님과 전혀 일면식도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조건없이 그들을 고치셨고, 수많은 이적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정이 다릅니다. 나사로를 비롯해 이들 삼남매는 예수님과 매우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말을 전하던 사람이 예수님께 나사로를 “당신이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점을 볼 때 더욱 그러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어야 할까요?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함께 동행해 주라고 가르치셨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조건없이 사랑하셔서 그들을 치유해 주셨고, 사마리아인들을 위해 이틀이나 사마리아 땅에 묵으셨던(요 4:40 참조) 예수님이라면 지금 상황에서는 당연히 모든 걸 제쳐 놓고 한걸음에 병든 나사로에게로 달려가셨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4 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은 말을 전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죽기 위한 병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됩니다.”

우리는 나사로가 매우 위독한 상태였고 한시가 급한 상황이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당장 자리를 털고 일어나 뛰어가서 그를 고쳐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굳이 가지 않고도 말씀만으로 그 자리에서 나사로를 온전하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너무도 태연하게 죽을 환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하는 것이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된다는 이해하기 힘든 말만 하시고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나사로와 관련된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 후에 전개되는 일을 아직 보지 않은 상황을 전제하고 당신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했을지 각자의 생각을 적어보십시오.

예수님의 이 말씀은 9장에 나면서부터 장님으로 태어나 거지로 연명하며 살았던 한 청년에 대해 그가 그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 나면서부터 장님이었고 나사로는 하나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도록 하기 위해 죽음을 맞보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설명하면서 세상에서 잘되고 남들보다 뛰어난 업적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일로 여깁니다.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더라도 ‘이왕이면’이라는 조건을 달아 그래도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고, 남들보다 뛰어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진정한 빛

의 의미를 알기 위해 한 청년은 장님이자 거지로 살아야 했고, 나사로는 죽어 장사되고 냄새가 나는 상황에까지 이르러야 했습니다. 장님은 눈을 뗐고,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회복을 의미한다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겪지 않아도 될 고난을 당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장님으로 태어나지도 않고 죽을 병에 걸리지 않고 장수할 수도 있었는데 말이지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의 지금 삶이 역경 가운데 있다면 그 상황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으신가요?

사실 예수님이 뭔가를 미루거나 지체한 것은 이번 한 번만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5 장에서도 우리는 유사한 경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거라사 땅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나 그를 치유하신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자마자 회당장 아이로가 와서 그의 딸이 죽게 되었으니 급하게 집으로 와달라는 간청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따라 아이로의 집으로 가던 중에 12년동안 혈우병을 앓아온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치유되는 일로 지체를 하게 되고 그로 인해 아이로의 딸은 예수님이 도착하기 전에 죽게 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열두 살 먹은 여자 아이를 살려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타의에 의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 마치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일부러 시간을 지체하십니다. 이처럼 자의든 타의든 사람이 죽게 되고 그 후에 살아나는 두 사건은 모두가 예수님이 지체하게 되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임을 보여주시려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집합적으로 교회라고 부릅니다. 사도 요한 당시 교회는 로마제국의 무자비한 핍박으로 인해 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며 간절히 기도했지만 예수님은 끝내 오시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믿음으로 인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하며 위로하였습니다. 베드로후서 3 장 8 절에서 18 절을 읽겠습니다.

“8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9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10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11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2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3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 거하는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14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15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16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17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

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군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¹⁸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찌어다”(벧후 3:8-18).

5-6 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은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리로 가지 않고 자신이 계시던 그곳에 이들을 더 머무십니다. 예수님이 발걸음을 지체하십시오으로 인해 결국 나사로는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 내십니다. 예수님은 로마 제국의 핍박 아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던 그 성도들에게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오래 참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로 인해 수 많은 사람들은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지체하는 것은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또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원하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오롯이 드러날 수 있으니까요!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빛과 어둠 (금요일)

오늘의 본문 (요 11:7~16)

7.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8.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9.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열 두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10.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고로 실족하느니라
11.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르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12.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낮겠나이다 하더라
13.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줄 생각하는지라
14.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르가 죽었느니라
15.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16.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원문해석하기

- (7절) 그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ἔπειτα μετὰ τοῦτο λέγει τοῖς μαθηταῖς·)
우리가 다시 유대로 올라가자 (ἄγωμεν εἰς τὴν Ἰουδαίαν πόλιν.)
- (8절) 제자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λέγουσιν αὐτῷ οἱ μαθηταί·)
랍비여! 얼마 전에 유대인들이 당신을 돌로치기 위해 찾았습니다
(ῥαββί, νῦν ἐζήτουν σε λιθάσαι οἱ Ἰουδαῖοι.)
그런데 당신은 그곳으로 다시 가시려하십니까? (καὶ πόλιν ὑπάγεις ἐκεῖ.)
- (9절)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ἀπεκρίθη Ἰησοῦς·)
하루가 열두시간이 아니냐? (οὐχὶ δώδεκα ὥραι εἰσιν τῆς ἡμέρας·)
만약 어떤 이가 낮 동안 다닌다면 (ἐάν τις περιπατῇ ἐν τῇ ἡμέρᾳ.)
그는 넘어지지 않는다 (οὐ προσκόπτει.)
왜냐하면 그가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이다 (ὅτι τὸ φῶς τοῦ κόσμου τούτου βλέπει.)
- (10절) 만약 어떤 이가 밤 동안 다닌다면 (ἐάν τις περιπατῇ ἐν τῇ νυκτί.)
그는 넘어진다 (προσκοπτει.)
왜냐하면 그 빛이 그 안에 없기 때문이다 (ὅτι τὸ φῶς οὐκ ἔστιν ἐν αὐτῷ.)
- (11절) 그는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Ταῦτα εἶπεν, καὶ μετὰ τοῦτο λέγει αὐτοῖς·)
나의 친구 나사르가 잠들었다 (Λάζαρος ὁ φίλος ἡμῶν κεκοίμηται·)
그러나 그를 깨우기 위해 내가 간다 (ἀλλὰ πορεύομαι ἵνα ἐξυπνίσω αὐτόν.)

- (12절) 그러자 제자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εἶπον οὖν οἱ μαθηταὶ αὐτῷ·)
주여! 만약 그가 잠들었다면, 회복될(구원될) 것입니다(κύριε, εἰ κεκοίμηται σωθήσεται.)
- (13절) 그러나 예수님이 그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εἰρήκει δὲ ὁ Ἰησοῦς περὶ τοῦ θανάτου αὐτοῦ,)
그러나 그들은 그가 잠들어 쉬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ἐκεῖνοι δὲ ἔδοξαν ὅτι περὶ τῆς κοιμήσεως τοῦ ὕπνου λέγει.)
- (14절)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τότε οὖν εἶπεν αὐτοῖς ὁ Ἰησοῦς παρηρησία·)
나사로가 죽었다(Λάζαρος ἀπέθανεν,)
- (15절) 그리고 나는 너희가 믿을 수 있도록 해서 너희로 인해 기쁘다(καὶ χαίρω δι' ὑμᾶς ἵνα πιστεῦσητε.)
너희가 거기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ὅτι οὐκ ἦμην ἐκεῖ·)
그러나 내가 너희를 그에게로 인도한다(ἀλλὰ ἄγωμεν πρὸς αὐτόν.)
- (16절) 그러자 디두모라고 불리우는 도마가 동료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εἶπεν οὖν Θωμᾶς ὁ λεγόμενος Δίδυμος τοῖς συμμαθηταῖς·)
우리도 그와 함께 죽기 위해 올라가자(ἄγωμεν καὶ ἡμεῖς ἵνα ἀποθάνωμεν μετ' αὐτοῦ.)

하나님 말씀 해석하기

7-8 절을 읽으십시오. 나사로의 상태가 위중하다는 소식을 들은지 이틀이 지난 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가 다시 유대로 올라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만류하며 예수님께 “랍비여! 얼마 전에 유대인들이 당신을 돌로 치기 위해 찾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곳으로 다시 가지려 하십니까?”라고 질문을 합니다. 위험하니 유대로 올라가지 말자는 말이지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치려 한 것은 수전절(태양력으로 12월 25일 경)에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요 10:30~3)라고 말씀하셨을 때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나사로를 살리신 일은 수전절 이후부터 예수님이 잡히셔서 수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처형된 유월절(태양력으로 3월말~4월초) 사이에 일어난 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얼마 전에도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했다고 말한 것은 아마도 그사이 어느날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다시 유대로 올라가자”(ἄγωμεν).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쓰인 헬라어 동사 ‘아고멘(ἄγωμεν)’은 예수님은 이미 올라가시기로 결정을 했으며 제자들도 동참하기를 권유하는 뜻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이 권유에 강제성은 없습니다. 제자들이 동참할지 안 할지는 제자들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제자들의 결정과 무관하게 예수님은 이미 유대로 올라가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이지요. 예수님의 이러한 권유에 대해 제자들은 예수님의 신변이 위협받을 것을 우려하여 예수님을 만류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 위험한 곳으로 왜 다시 들어가시려고 하는지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한 의도는 제자들이 순수하게 예수님을 걱정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 말의 이면에는 제자들의 비겁함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랍비라는 말은 단순히 지식을 전해 주거나 도제식으로 공부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운명을 같이 하는 운명 공동체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신변 문제도 걱정이었지만 자신들도 예수님과 같은 운명을 맞이해야 한다는 두려움도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도마는 “우리도 그와 함께 죽기

위해 올라가자”(16 절)라고 말하는데 이 말 속에는 자신도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도 있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비겁함이란 진리를 알면서 그리고 그 진리가 상대방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상대방의 반응이 두려워 그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려움은 현실을 직면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현실과 타협하게 만듭니다. 자신의 색을 뚜렷하게 드러내기보다는 카멜레온처럼 자신의 색깔을 감추고 주위 환경에 자신의 색을 맞추는 것이지요. 우리는 어떠한가요? 세상에서 ‘다름’으로 비취지는 것이 두려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숨기고 산 경험은 없는지요? 자신이 비겁했던 경험을 간단하게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9-10 절을 읽으십시오. 제자들의 만류성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하루가 열두 시간이 아니냐? 만약 어떤 이가 낮 동안 다닌다면, 그는 넘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가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어떤 이가 밤 동안 다닌다면, 그는 넘어진다. 왜냐하면 그 빛이 그 안에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이 대답은 제자들의 걱정스런 질문에 전혀 적합하지 않은 동문서답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한 것도 낮 동안에 일어난 일이지 오히려 밤에는 예수님이 안전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기에 이 말씀은 앞으로 자신에게 일어날 일뿐 아니라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은 빛가운데 거하고 빛을 보고 있는 상태이므로 결코 위험하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9장에서 빛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낮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다고 하셨습니다(요9:4참조). 하나님의 일의 하이라이트는 부활입니다.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일이지요. 예수님은 그것을 보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셔야 했습니다. 그것이 낮 동안에 예수님이 하실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낮 동안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좁게는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빛과 어둠의 기준은 예수님과 동행하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떠나 스스로 존재하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12장에서 어둠, 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³⁵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³⁶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요 12:35-36).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요 12:46).

결국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라면, 그리고 자신을 본다면 넘어지지 않고 진리 안에 거할 수 있고 빛에 다니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다니면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육체적인 고난이나 순교가 없을 거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빛의 기준은 이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 처하든 빛 가운데 있는 것이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각자 자신의 상태를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넘어질 수 없는 사람들이지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어야 합니다.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에 매몰되지 말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사랑하는 자—예수님의 친구 (토요일)

오늘의 본문 (요 11:7~16)

7.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8.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9.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열 두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10.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고로 실족하느니라
11.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르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12.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낮겠나이다 하더라
13.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줄 생각하는지라
14.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르가 죽었느니라
15.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16.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원문해석하기

- (7절) 그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ἔπειτα μετὰ τοῦτο λέγει τοῖς μαθηταῖς·)
우리가 다시 유대로 올라가자 (ἄγωμεν εἰς τὴν Ἰουδαίαν πόλιν.)
- (8절) 제자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λέγουσιν αὐτῷ οἱ μαθηταί·)
랍비여! 얼마 전에 유대인들이 당신을 돌로치기 위해 찾았습니다
(ῥαββί, νῦν ἐζήτουν σε λιθάσαι οἱ Ἰουδαῖοι.)
그런데 당신은 그곳으로 다시 가시려하십니까? (καὶ πόλιν ὑπάγεις ἐκεῖ.)
- (9절)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ἀπεκρίθη Ἰησοῦς·)
하루가 열두시간이 아니냐? (οὐχὶ δώδεκα ὥραι εἰσιν τῆς ἡμέρας·)
만약 어떤 이가 낮 동안 다닌다면 (ἐάν τις περιπατῇ ἐν τῇ ἡμέρᾳ.)
그는 넘어지지 않는다 (οὐ προσκόπτει.)
왜냐하면 그가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이다 (ὅτι τὸ φῶς τοῦ κόσμου τούτου βλέπει.)
- (10절) 만약 어떤 이가 밤 동안 다닌다면 (ἐάν τις περιπατῇ ἐν τῇ νυκτί.)
그는 넘어진다 (προσκόπτει.)
왜냐하면 그 빛이 그 안에 없기 때문이다 (ὅτι τὸ φῶς οὐκ ἔστιν ἐν αὐτῷ.)
- (11절) 그는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Ταῦτα εἶπεν, καὶ μετὰ τοῦτο λέγει αὐτοῖς·)
나의 친구 나사르가 잠들었다 (Λάζαρος ὁ φίλος ἡμῶν κεκοίμηται·)
그러나 그를 깨우기 위해 내가 간다 (ἀλλὰ πορεύομαι ἵνα ἐξυπνίσω αὐτόν.)

- (12절) 그러자 제자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εἶπον οὖν οἱ μαθηταὶ αὐτῷ·)
주여! 만약 그가 잠들었다면, 회복될(구원될) 것입니다(κύριε, εἰ κεκοίμηται σωθήσεται.)
- (13절) 그러나 예수님이 그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εἰρήκει δὲ ὁ Ἰησοῦς περὶ τοῦ θανάτου αὐτοῦ,)
그러나 그들은 그가 잠들어 쉬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ἐκεῖνοι δὲ ἔδοξαν ὅτι περὶ τῆς κοιμήσεως τοῦ ὕπνου λέγει.)
- (14절)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τότε οὖν εἶπεν αὐτοῖς ὁ Ἰησοῦς παρηρησία·)
나사르가 죽었다(Νάζαρος ἀπέθανεν,)
- (15절) 그리고 나는 너희가 믿을 수 있도록 해서 너희로 인해 기쁘다(καὶ χαίρω δι' ὑμᾶς ἵνα πιστεῦσητε.)
너희가 거기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ὅτι οὐκ ἦμην ἐκεῖ)
그러나 내가 너희를 그에게로 인도한다(ἀλλὰ ἄγωμεν πρὸς αὐτόν.)
- (16절) 그러자 디두모라고 불리우는 도마가 동료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εἶπεν οὖν Θωμαῖς ὁ λεγόμενος Δίδυμος τοῖς συμμαθηταῖς·)
우리도 그와 함께 죽기위해 올라가자(ἄγωμεν καὶ ἡμεῖς ἵνα ἀποθάνωμεν μετ' αὐτοῦ.)

하나님 말씀 해석하기

11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은 나사르가 잠들었고 그를 깨우러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분명히 나사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죽었다고 하시지 않고 잠들었다고 표현하십니다. 죽은 것과 잠을 자는 것은 엄연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굳이 그가 '잠들었다'고 표현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잠들었다고 표현하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화당장 아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도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셔서 사람들의 비웃음을 산적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 열두 살된 소녀를 다시 살리셨지요(막5:35~43 참조).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표현한 것은 부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죽음이란 육체와 영혼의 영원한 소멸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부활이 보장된다면 영혼은 물론 육체도 다시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에서 주안에서 죽은 사람들과 부활에 대해 데살로니가 전서와 고린도 전서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⁴³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⁴⁴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⁴⁵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 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⁴⁶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좇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⁴⁷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⁴⁸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살전 4:13-18).

“⁴³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⁴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 것이며 ⁴⁵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¹⁶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¹⁷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¹⁸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¹⁹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고전 15:13-19).

위 두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죽은 자’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를 같은 의미로 교차해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죽은 자가 잠자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활이 전제되어야만 합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차별된 것은 바로 부활이 있기 때문이며 예수님이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로 소망이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현재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예수님은 나사로를 ‘나의 친구’(ὁ φίλος ἡμῶν)라고 부르십니다. 여기서 ‘친구’라는 단어로 번역된 필로스는 요한복음을 통틀어 모두 11번 사용되었습니다. 그중 15장에 세 번이나 연거푸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친구의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계십니다.

“⁴²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⁴³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⁴⁴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⁴⁵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요 15:12-15).

여기서 친구는 ‘사랑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일방적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사이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5장에서 필로스를 설명하면서 아주 독특한 논리를 사용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논리는 친구간의 가장 큰 사랑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며 이 말씀대로 행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사랑하는 친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가장 위대한 방법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필로스라고 부른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나사로의 입장에서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는 나사로를 위해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실 것이고 결국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나사로를 향한 사랑은 단순히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 진정한 사랑이지요. 예수님은 결국 사랑하는 자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 나사로는 바로 교회이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한편, 나사로의 입장에서 는 어떠한가요? 나사로는 예수님의 필로스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사로를 한 개인이 아니라 교회 전체로 보아야만 합니다. 특히 요한이 속했던 초대 교회 공

동체는 로마제국의 핍박으로 인해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환란을 피하려고 배교하여 일상으로 돌아가는 대신 순교를 택한 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걸로 믿음을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최고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 때문에 나사로로 대표되는 교회는 예수님의 필로스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렸습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고 친구로 여겼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어떠한가요? 당신은 기꺼이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 주님을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습니까?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